

출가 재가 역할 재정립 논평

이리교당 김정화

출가 재가의 역할에 대해서 재미있는 사례와 예시들을 들어 마음에 쏙 들어오게 잘 정리해 놓은 것 같습니다. 특히 과거부터 현재까지 출가 재가 역할의 명칭과 역할 변천사에 대해서 정리한 것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실 출가 재가의 역할과 재가의 교화에 대한 역할을 확대해야 하다는 이야기는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지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구체화 시킬 수 있을 것인지, 현실에 적용하면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조창순 교도님의 발표내용은 현재의 문제점을 제시하는 단계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고, 어떻게 구체화 시켜나갈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 중에 하나로 법회를 설교 위주에서 탈피하여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한 것은 신선합니다. 이 대안은 설교를 위주로 법회를 보는 것이 곧 재가 위주의 법회다라고 생각하는데서 비롯한 발상입니다.

위 의견에 대하여 본인은 일부는 동의하고 일부는 다른 의견이 듭니다.

우선 우리 원불교의 훈련법에 설교라는 항목은 없습니다. 정기훈련 11과목에도 없고, 상시훈련의 내용도 아닙니다. (강연 정도가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회는 너무 설교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교육이 다른나라와 달리 쌍방향이 아니라 일방향 수업 위주로 되어 있는데서 비롯된 오랜 관습으로 인한 현상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일방향 교육만 받고 자란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 세계로 나아갔을 때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데 있어 충분한 역량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문제점등이 발견되고, 세계화에 발맞추기 위해 우리나라의 교육도 사회도 점차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을 반영할 때 원불교가 세계 종교로서 발돋움 하려면 이러한 일방향 법회의 구성은 바뀌어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꼭 설교가 없어져야 한다고 보는 것은 아니며, 설교의 시간을 단축시키든지, 이 설교를 출가교역자와 함께 재가교역자나 법사단 이상의 분들이 한번씩 번갈아 하시던지하는 방법도 고려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자가 지자에게 배울 수 있는

방법으로 설교가 가장 좋은 수단이라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출가와 재가의 역할을 어떻게 재정립해야 할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명칭의 문제입니다.

원래 출가와 재가의 명칭이 없다가 언제가부터 교무님이라는 출가의 호칭이 생기고, 교도라는 재가의 호칭이 생긴 것은 조창선 교도의 발표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원무의 명칭이 원래는 재가 교무였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원무와 재가교무의 느낌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이는 원무 본인 스스로의 마음가짐도 달라지며, 주변 다른 교도들의 원무를 대하는 태도도 확연히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가가 스스로 자신이 교단의 주역자라고 생각하고 출가 못지 않는 잠재된 역량을 발휘하게 하기 위해서는 재가의 호칭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재가의 교정 참여 확대입니다.

조창선 교도도 지적했듯이 수위단이나 교단의 주요 의사 결정 기관에 재가가 속해 있는 비율이 너무 적고, 게다가 그러한 대표성을 띠는 재가 수위단도 출가들에 의해 뽑혀집니다. 그렇기에 재가의 의사가 위로 전달될 루트가 거의 없고, 재가의 교정 참여가 현재는 불가능 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재가가 교정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수위단 재가 비율을 높이고, 재가의 대표성을 띤 청운회장, 교의회장, 봉공회장 등이 수위단을 구성하며, 교단의 중앙에 재가가 의견을 제시하고, 그것에 대한 답변과 해결책을 줄 수 있는 부서를 따로 신설해 관리하는 등의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셋째, 재가의 교화 참여 확대입니다.

현재 출가의 배출이 점점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신설 교당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출가 일인당 담당해야 할 교도 수는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현상을 감안할 때 각 교당에서 재가의 역할이 늘어나야 합니다. 각 교당에 전문 인력을 활용한 회계, 감사, 출판 등의 일 뿐 아니라 교화, 훈련등에 있어서도 재가 교도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재가 교역자의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각 교당에서 직접 교화, 훈련등을 담당하게 하여 출가 교역자의 일을 분담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로 인해 재가는 역량을 강화하며, 교단의 주인이 될 수 있고, 출가는 남은 시간과 여력으로 자신의 공부에 더욱 매진하여 스스로의 역량을 높이고 수준높은 교화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더 나가가 뒤늦게 입문하였거나 오래된 신심깊은 교도가 직장을 그만둔 후 원불교 교화와 발전에 매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아야 할 것입니다. 100세 이상을 평균 연령으로 바라보는 요즘, 60세면 퇴직하는 재가 교도의 경우 그 에너지와 아까운 재능을 그냥 썩히지 않도록 교단의 교화와 발전에 쓰일 수 있도록 한다면, 줄어드는 출가에 대한 걱정과 늘어나는 능력있는 재가에 대한 활용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한편, 대종사님이 말씀하셨던 출재가 구별없는 원불교 회상을 설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원불교의 능력있고 우수한 출가, 재가가 다 같이 협력하여 최선의 교화와 최선의 공부길을 함께 밟아나갈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을 광대무량한 낙원세계를 만드는데 우리 원불교 교단이 최선단에 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